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속의 잠녀는 무엇을 따고 있을까?¹⁾

고광민 (제주학연구소)

『탐라순력도』는 이형상(李衡祥, 1653~1733) 목사의 순력의 내용을 담은 그림책이다. 이형상은 숙종 28년(1702) 11월에 탐라(제주도)를 순력하였다. 그 동안에 화공(畫工) 김남길(金南吉)은 모두 41점의 그림을 그렸다.

그림의 틀은 3단 구성이다. 상단에는 그림의 이름을 적고, 중단에는 그림을 그린다. 하단에는 그림의 내용을 기록한다. 그런데 41점의 그림 중에 그 하단에 아무런 기록이 없는 그림이 있다. 그것이 「병담범주(屏潭泛舟)」다. '병담'은 '취병담(翠屏潭)'이다. 달리 '용연(龍淵)'이라고도 한다. 이곳에서 뱃놀이를 하는 그림이다(도1). 뱃놀이는 순력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하단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것일까. 그런데 이 그림에 잠녀(潛女)가 등장한다. 제주도 잠녀의 최초 화상(畫像)이다. 그들은 무엇을 따고 있을까. 현행복 선생의 『취병담(翠屏潭)』(도서출판 각, 2006)을 읽다가 『탐라순력도』 속의 잠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다.

우선, 「병담범주」 속의 해변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여다보자.

① 병문천(屏門川) : 지금의 제주시 오등동 남쪽, 한라산의 1.500m 고지에서 발원하여 벌랑포(伐郎浦)를 지나 바다로 나간다.

② 벌랑포(伐郎浦) : 병문내 하류에 있는 갯가의 이름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곳을 '부러릿개'라고 한다.

③ 대천(大川) : 한천(漢川)이라고도 한다. 제주도에서 가장 긴 하천이다. 한라산 정상에서 발원하여 취병담(翠屏潭)을 지나 바다로 간다.

④ 취병담 : 대천 하류지역에 있는 물웅덩이다. 달리 병담(屏潭), 용추(龍湫), 용연(龍淵)이라고 한다. 이형상은 『남환박물(南宦博物)』에서, 취병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일명 '용추(龍湫)'라고도 한다. 이곳은 주의 서쪽 성[州西城] 바깥 2리에 있다. 이곳 한천

1) 이 글은 최근(2016년 6월 29일)에 나온 『제주 생활사』(도서출판 한그루)에도 실려 있습니다.

하류 양쪽은 벼랑이 깎아지른 석벽이다. 그 높이는 수십 장(丈)이다. 그 아래는 맑은 못이다. 길이는 수 백 칸(間)이다. 너비는 일백 척(尺)이다. 물 깊이는 수 장(丈)이다. '먹돌(礪石)'이 많다. 두충(杜冲), 감류(柑榴)가 양쪽 벼랑에 둘러싸여 자란다. 뱃놀이하기가 좋다.

⑤ 대독포(大瀆浦) : 대천 하류에 있는 갯가의 이름이다. 이 일대를 '한대기'라고 한다. 대독포(大瀆浦)의 '대독'은 '한대기'의 한자를 차용한 표기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넋깎'이라고 한다. 사리 썰물에는 걸어서 지날 정도로 물이 줄어든다.

⑥ 대천외리(大川外里) : 그 당시 제주목(濟州牧)에서 볼 때 대천 바깥에 있는 마을이라는 말이다. 대천을 경계로 동쪽에 있는 마을을 '동한두기', 서쪽에 있는 마을을 '서한두기'라고 한다. 대천외리는 서한두기가 된다. 지금의 용담1동에 속한다.

⑦ 용두(龍頭) : 둘이다. 동쪽의 용두를 '영코지'라고 한다. '영물'이라는 식용의 용출수(湧出水) 바로 동쪽에 있는 코지라는 말이다. 서쪽의 용두를 '용머리코지'라고 한다. 영코지와 용머리코지 사이 후미진 곳을 '영개낭'이라고 한다. 「병담범주」 그림 속에서 장막(帳幕)을 친 곳이다. 영개낭 앞에는 '패선여'가 있다. 잠녀들의 어장이면서, 어부들이 자리돔을 잡는 어장이다.

「병담범주」의 그림 속 취병담에서는 뱃놀이가 한창이다. 현행복의 묘사(『취병담』, 121쪽)로 대신한다.

수양버들 늘어진 한낮의 용연에서, 세 척의 배를 띄워놓고, 계곡을 울리며 어울려 들려오는 소리는 악공들의 대금소리와 북소리 그리고 기생들의 노랫소리들이다. 목사 바로 앞의 한 무리의 기생들은 아마도 가야금을 타며 노래라도 부르고 있는 듯 다소곳이 앉아 있고, 바로 뒤로는 가객(歌客)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시선을 달리 한 채 시조창이라도 읊조리듯 정좌해 앉아 있다. 붉은 관모에 도포자락을 걸친 채 위엄 있게 자리한 목사는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동시에 용연의 풍경을 만끽하고 있는 듯 진지한 모습이다. 목사 일행이 탄 배 바로 옆으로는 주안상을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대기 중인 가객이 탄 것 같기도 한 배가 한 척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배에는 목사 일행을 호위하는 임무를 띤 군관과 병졸들이 선승하여 있는 듯하다.

취병담에서 뱃놀이를 하고 있는 그 순간, 영개낭 앞바다에는 다섯 잠녀가 물질을 하고 있다. 잠녀들은 무엇을 잡고 있을까. 이원조(李源祚, 1792~1872)의 『탐라록(耽

羅錄』에 실마리가 보인다.

조선왕조 헌종9년(1843) 윤3월 24일 날, 그 당시 제주목사 이원조는 용연(龍淵)에서 뱃놀이한다. 그 내용을 『탐라록』에 기록한다(도2). 그 일부를 소개한다.

용연에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 하나의 언덕을 넘으니, 좌우 모두 괴상하게 생긴 돌이다. 돌 한 덩어리가 마치 수 칸짜리 집채와 같다. 바닷가 쪽으로 구부리고 누워 있다. 머리의 뿔 모양이 완전히 용 모양이다. 언덕마루가 평평한 곳에 장막을 친다. 가느다란 풀잎과 푸른 가시나무가 바람과 햇볕을 받으니 곱고 아름답다. 일찍 밀려왔던 조수가 이제 막 빠져나가니 파도는 일지 않는다. 대소화탈도(大小火脫島)는 마치 상투나 주먹처럼 보인다. 고깃배들은 점점이 오간다. 잠녀 수십 명을 불러들인다. 해삼과 전복을 받는다. (중략) 점심밥을 보내오기 전에 잠녀들에게 쌀과 콩을 주니 모두 기뻐하며 돌아간다.

이형상의 「병담범주」는 이원조의 '용연 선유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과 다름없으니, 이원조의 선유기로 이형상의 「병담범주」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 당시 용연의 뱃놀이는 제주 목사들의 부정기적 연례행사였고, 그럴 때마다 잠녀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무엇인가를 채취하였던 것이다.

이원조 목사의 취병담 뱃놀이는 음력 윤3월 24일 날에 이루어진다. 물때는 '한물'이다. 조수간만(潮水干滿)이 미미한 조금 때다. 사리 썰물 동안에 취병담의 물은 거의 빠져버린다. 뱃놀이를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니 취병담의 뱃놀이는 조금 때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취병담의 뱃놀이는 오전에 이루어진다. 그 동안 잠녀들은 '영개냥'이라는 바다밭에서 물질을 한다. 「병담범주」는 바로 이 순간을 포착한 그림이다.

점심때가 다가올 무렵이다. 뱃놀이 일행은 장막을 쳐놓은 '영개냥'으로 자리를 옮긴다. 잠녀들을 불러 해삼과 전복을 받고 그 값으로 쌀과 콩을 주고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그렇다. 조선왕조 헌종9년(1843) 윤3월 24일 오전, 물때는 조금이다. 잠녀(潛女)들은 뱃놀이꾼들에게 바칠 전복과 해삼을 따고 있었다. 그림 속의 잠녀는 전복을 따는 '빗잠녀'들이다. 왼손이나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은 '빗창'이다.

제주도의 해삼은 붉은 빛이 감도는 홍삼(紅蔘)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이를 '미'라

고 한다. '미'는 여름이 가까워지면 암초 밑에 숨어들어 여름잠을 자다가 겨울이 다가와 수온이 내려가 추울 때라야 왕성하게 활동한다. 이 무렵(윤3월 24일)에 미(해삼)는 깊은 바다 속으로 숨어들 시기다. 이 시기에 미는 귀해서 "4월에 잡은 미는 사돈집에 가지고 간다"라는 속담이 전승한다. 「병담범주」 속의 빗잡녀들은 귀한 미(해삼)를 채취한 것이다.

[도1] 「병담범주(屏潭泛舟)」의 일부

[도2] 이원조의 『탐라록(耽羅錄)』 신축 윤3월 24일의 기록

二十四日晴往遊龍洞之在西門外海濱獨浦村
 倚山溪通海潮溪中皆怪石兩岸壁立數丈為水
 所磨凹凸所頻可觀而坦地勢溪泉從兩岸俯
 窺入其中遙尺傾側無可安坐虛深水伏流無涼
 爭之聲下流通潮濤雜有水而溇渾無清意可久
 移席拉龍頭距淵越一岡左右山足皆怪石一塊
 如數間屋偃臥海濱頭角宛然如龍故名設帳於
 岡頭平行處細草淡風日暄妍早潮方退波濤
 不興望見大小火脫島如髻如拳漁艇點之往來
 招潛女數十人採納參鱸各逞技能須臾堆積滿
 前饋以午飯分給米斗皆歡悅而去

[도2] 이원조의 『탐라록(耽羅錄)』 신축 윤3월 24일의 기록